

# 明齋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典籍에 관한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Old Books of Myeongjae  
Yoon Jeung's Family Collection

林 英 蘭(Lim, Young-Ran)\*

姜 順 愛(Kang, Soon-Ae)\*\*

##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윤증가 소장 문중문고의 형성시<br>기와 장서구성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윤증가 소장 고서의 주제별 및<br>판종별 분석  |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결 론                          |
| 1.3 선행연구의 개관     | <참고문헌>                         |
| 2. 파평윤씨 노종파의 가계  |                                |

## < 초 록 >

명재 윤증가 소장 문중문고에는 파평윤씨 노종파인 윤증의 가문에서 윤선거(1601-1669), 윤증(1629-1714), 윤행교(1661-1725)와 윤동원(1685-1741)을 거쳐 윤하중(1900년대 초-1959?)때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년간에 형성된 고서 693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 고서들은 조선시대 중·후기의 정치 및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종합적인 집서군으로 문중문고 중에서는 대표적인 컬렉션이다.

본 연구는 여러 문헌과 실물자료의 방증 및 전적조사를 종합하여 파평윤씨 노종파의 가계와 윤증 일가의 주요 인물들을 알아보고, 문중문고의 형성시기와 장서구성을 고찰한 후 소장 자료의 주제별 및 판종별로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는 실천경학분야와 기호학파의 성리학자료, 사계예학을 계승한 예학자료, 예송논쟁과 관련된 政爭자료, 명재 윤증의 혈연·학연·지연 관련의 전기자료, 금석·예술분야의 탁본류와 유목자료, 17~20세기의 책력자료, 기호학과 인물들의 시문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판종별로는 목판본, 필사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석판본, 탁본류가 있으며 목판본과 필사본이 가장 많다. 특히 이들 자료군 중 명재의 「가례원류」 수고본, 명재문고 내사본 「열성어필」, 「대통력」 및 「시현력(1651-1754)」 16종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다.

要語 : 명재 윤증가의 문중문고, 문중문고, 윤선거, 윤증, 윤행교, 윤동원, 윤하중

\* 한성대학교 대학원(younggranlim@hanmail.net)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5년 9월 8일 최초심사일: 2005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23일

<ABSTRACT>

Yoon Jeung's family, belonging to the Nojong Branch of the Yoons from Papyeong, has 693 volumes of rare old books, which have been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Yoon Jeung's family collection had been developed for 400 years from the days of Noseo, Yoon Seon-Geo (1601-1669), Myeongjae, Yoon Jeung (1629-1714), Yoon Haeng-Gyo (1661-1725), and Yoon Dong-Won (1685-1741) to those of Yoon Ha-Jung (the early 1900s-1959?). These books have representative properties of the family collection as an integrated group of books that reflect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the middle/late Chosun Dynasty.

This study has integrated pieces of circumstantial evidence from various literature and material data as well as investigations of books to examine the genealogy of the Nojong Branch of the Yoons from Papyeong, and important characters from Yoon Jeung's family. Then, we have analyzed the books of the collection by themes and types of publishing after we have examined the time of foundation of the collection and the structure of books coll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llection is classified as a group of book collection representing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the middle/late Chosun, and hence it consists of metaphysical data of the School of Giho and of the discipline of the pract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ethical data succeeding to the Sagye ethics, data of political struggle related to the Ye-Song debate, biographical data related to Yoon Jeung's kinship, scholastic relations, and home affiliations, rubbed copies and inherited calligraphic data which have both artistic and historical values, data of almanacs, and poetic data of members from the School of Giho. By their publishing types, we can classify them into xylographic books, manuscripts, metal-typed prints, wooden-typed prints, lithographic books, and rubbed copies, of which the wooden-typed prints and manuscripts are the majority. Especially, among these groups of data, a manuscript of Garyewonryu, Yeolseongeopil from Myeongjae's collection, and 16 volumes of Daetongryeok and Siheonryeok have values of cultural assets.

Key words : Myeongjae Yoon Jeung's family collection, Yoon Seon-Geo, Yoon Jeung, Yoon Haeng-Gyo, Yoon Dong-Won, Yoon Ha-Jung

## 1. 序 論

### 1.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조선 중기 숙종조 老·少論의 봉당정치가 한창이던 시기에 소론의 영수로 활약했던 明齋 尹拯家에는 여러 대에 걸쳐 遺傳되어 온 고서 693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조선 중·후기의 정치·사회사를 반영하고 있는 종합적인 집서군으로서 門中文庫의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증가 소장의 문중문고<sup>1)</sup>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魯西 尹宣舉(1601-1669) 때인 것으로 짐작된다. 윤선거가 아버지 尹煌이 소장하고 있던 구장서의 일부를 물려받아 소장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고 그 뒤를 이어 윤선거의 아들 명재 尹增(1629-1714) 때에 이르러 문중문고로서의 기틀이 잡혔다. 윤증은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 기증본, 자신의 저술본 들로 문고의 장서를 확충시켰고 이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문중문고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尹行教(1661-1725)와 一庵 尹東源(1685-1741) 시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윤선거와 윤증의 유고를 편찬·간행하면서 장서가 늘고 선대의 영향력에 기인한 외부의 기증본들로 장서량이 증가되었다. 윤동원 이후 윤하중 이전의 8대(1741-1900년대초)에 이르는 시기는 윤증가 문중문고의 침체기라 할 수 있지만 집안사람들의 저술 간행과 기증본 등에 의한 장서의 증가가 다소 있었고, 離隱時舍 尹晙重(1900년대초-1959?) 시기에는 구입본과 기증본으로 인한 장서의 증가가 많았으며 특히 윤하중이 심취해 있던 천문학류의 장서가 확충되는 시기였다.

1) 문중문고의 개념은 서지학 분야에서는 문중의 자체교육을 위해 宗中에서 설치 운영된 장서의 개념으로 좁게 이해되었고, 역사분야에서는 문중의 여러 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수집·관리·보존되어온 장서의 개념으로 넓게 이해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윤선거 이후 윤하중까지 여러 대에 걸쳐 수집·관리·보존된 장서의 성격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형성된 윤증가 문중문고의 장서들은 근래까지 윤증 古宅<sup>2)</sup>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그 중 486종은 윤증가의 위탁을 받아 국사편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07종은 윤증 고택으로부터 구입한 한 개인 소장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문중문고의 장서에 대해서는 1989년 한국학중앙연구원(구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 의해 문고 소장의 일부 古文書에 대한 제한적 조사활동만 있었을 뿐이며<sup>3)</sup> 전체 장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과 실물자료의 방증 및 전적조사를 종합하여 파평 윤씨 노종과의 가계와 윤증 一家의 주요 인물을 알아보고, 문중문고의 형성시기와 장서구성을 고찰한 후 소장 자료의 주제별 및 판종별로 분석하였다.

##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는 윤증 문중문고에 소장하고 있는 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윤증 고택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486종과 개인이 소장 관리하고 있는 207종을 취합하여 고서 693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위의 자료 693종에 대한 書誌 目錄을 작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노서문고 42종 211책, 명재문고 228종 826책, 행교문고 30종 40책, 일암문고 62종 247책, 이은시사문고 147종 395책, 기타 184종 509책으로 나누고 문고별로 형성시기와 장서구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윤증 문중문고 집서군에서 대표가 될만한 7개의 주제영역 즉 經學 및

2) 明齋 윤증 고택은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재의 나이 49세인 丙辰年(1676)에 신축하여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집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중기 건축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건물이다.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古文書集成 4, 坡平尹氏編(古典資料叢書 89-1). (城南: 同研究院, 1989).

儒家類 분야 101종, 禮學 분야 32종, 政治 분야 58종, 傳記 분야 68종, 金石·藝術 분야 29종, 天文·算法 분야 32종, 詩文 분야 269종 등으로 나누어 주제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전체장서 693종의 판종은 木板本, 筆寫本, 金屬活字本, 木活字本, 新鉛活字本, 石版本, 拓本이다. 木板本은 총 328종 1,280책 중 간행시기를 알 수 있는 1910년 이전의 자료 119종, 筆寫本 217종 406책 중 필사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48종, 金屬活字本 30종, 木活字本 8종, 新鉛活字本 35종, 石版本 15종, 拓本 23종을 대상으로 판종별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소장자료 중 고서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고문서는 成冊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소장자료 중 파손이 심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3 先行研究의 概觀

현재까지 이루어진 문중문고에 관한 연구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문고 소장 고문서의 사료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 문고 소장 장서의 서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 문중의 학문적 성격을 다룬 연구로 구분된다.

첫째, 고문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해 국내 소장 고문서에 대한 집성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중 소장의 고문서들을 모아 대상 문중별로 “古文書集成”과 혜제집 발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鄭求福(1999)은 호남지방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sup>4)</sup>를 발표하였으며 고문서의 사례를 연구한 “古文書와 兩班社會”<sup>5)</sup>를 발표하였다. 김경숙(2001)은 문중통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통문의 주체와

4) 鄭求福外,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99).

5) 鄭求福, 「古文書와 兩班社會」(서울: 一朝閣, 2002).

내용에 대한 “朝鮮後期 門中通文의 類型과 性格”<sup>6)</sup>을 발표하였다.

둘째, 문중 소장의 장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이춘희, 김동환, 배현숙, 옥영정의 연구가 있다.

먼저 李春熙(1974)는 봉화에 세거하던 의성김씨의 문중문고인 映奎軒文庫와 대구의 문씨 집안의 문중문고로 文樸이 설립한 壽峰精舍文庫의 형성과정과 藏書內容에 대해 분석하고 문중문고의 특징을 밝힌 “門中文庫에 대하여”<sup>7)</sup>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서 문중문고에 대한 정의를 하고, 문중문고의 목적이 문중 자제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으로 金東滉(1991)은 冲齋權檣(1478-1548)의 遺物館에 보존되어 있는 典籍資料들의 主題別, 版種別 분석을 하여 “冲齋 遺物館 藏書研究”<sup>8)</sup>를 발표하였으며, 裴賢淑(1993)은 전라도 곡성의 默容室 丁日宇 가문에서 수집하여 소장하였던 묵용실 장서에 대한 분석을 하여 “谷城 丁氏家の 默容室 藏書”<sup>9)</sup>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玉泳晟(2002)은 경북 예천 함양박씨가문의 전적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咸陽朴氏 家傳 古文獻의 내용과 資料的 特性”<sup>10)</sup>과 “味山文庫의 古書와 古文書”를 발표하였다.

셋째, 문중의 학문적 성격을 다룬 연구로는 李相弼(2003)이 진주에 세거하던 泰安朴氏 門中을 중심으로 문중과 학문계승 양상에 대한 연구를 하여 “泰安朴氏 門中과 南冥學 繼承 樣相”<sup>11)</sup>을 발표한 것이 있고, 김문택(2005)은 안동의 진성이씨 가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16~17C 안동 진성이씨가의 족계와 문중조직의 형성과정”<sup>12)</sup>을 발표하였다.

6) 김경숙, “朝鮮後期 門中通文의 類型과 性格,” 『古文書研究』 19(2001), 105-146.

7) 李春熙, “門中文庫에 대하여,” 『한국비블리아』 第2輯(1974), 88-101.

8) 金東滉, “冲齋 遺物館 藏書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1).

9) 裴賢淑, “谷城 丁氏家の 默容室 藏書,” 『文獻情報學報』 第5輯(1993. 8), 中央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創設 30周年 紀念論文輯, 331-353.

10) 玉泳晟, “咸陽朴氏 家傳 古文獻의 내용과 資料的 特性,” 『書誌學研究』 第19輯(2002), 255-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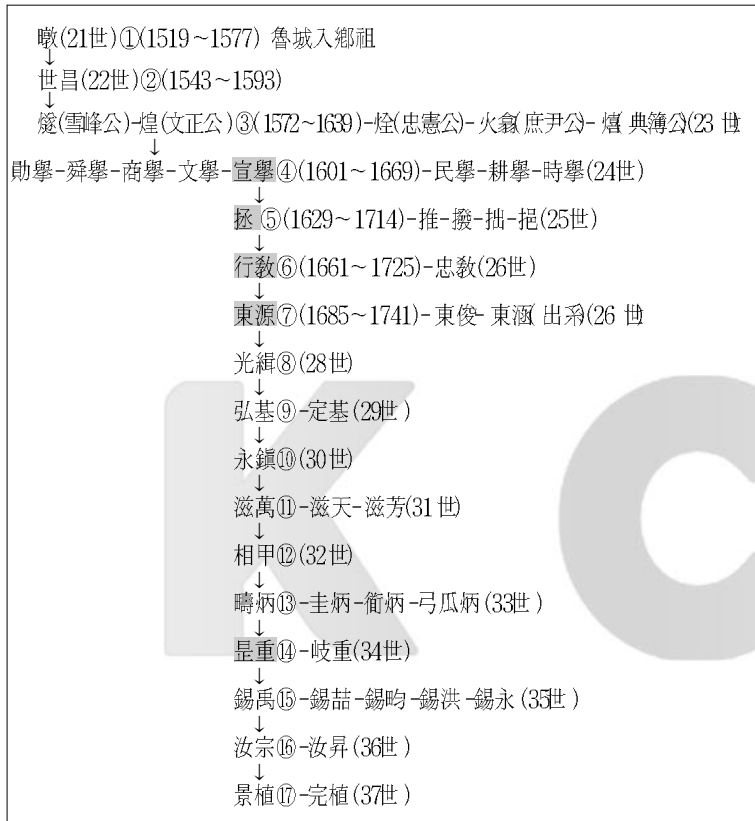
11) 李相弼, “泰安朴氏 門中과 南冥學 繼承 樣相,” 『南冥學研究』 第15집(2003), 1-23.

12) 김문택, “16-17C 안동 진성이씨가의 족계와 문중조직의 형성과정,” 『조선시대사학보』 32호(2005), 2-52.

## 2. 坡平尹氏 魯宗派의 家系

坡平尹氏 魯宗派는 朴平尹씨 21世인 尹噉이 부인의 고향인 지금의 忠南 論山시 論成면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이 곳에서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남긴 尹선거와 그의 아들 尹중으로 대표되는 一家世族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朴平尹씨 魯宗派의 家系를 分과도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sup>13)</sup>

<표 1> 朴平尹씨 魯宗派 分과도



13) 坡平尹氏魯宗派譜. 木板本. [光武 3(1899)].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평윤씨 노종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논산의 魯城으로 이사하여 일가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노종파의 入鄉祖는 尹暉이다. 그는 명종 6년(1551)-광해군 4년(1612) 때의 인물이며 文臣으로 字는 汝昇, 號는 竹窓이다. 조선 중기 大儒인 李滉·奇大升의 문인으로, 선조 12년(1579)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선조 26년(1593)에 명나라 장수 駱總兵·吳遊擊이 나오자 부교리로서 그들의 接伴官으로 활약하였다. 이어 직제학·동부승지·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선조 31년(1598) 병조참의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러 戚臣의 직을 파할 것과 宗系辨誣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후 대사성·도승지·병조참판을 거쳐, 선조 37년(1604) 공조판서에 올라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sup>14)</sup>

윤돈의 손자인 尹煌은 선조 4년(1571)-인조 17년(1639)의 인물로 자는 德耀, 호는 八松이다. 선조 30년(1597)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主和를 반대, 李貴·崔鳴吉 등 주화론자의 유배를 청하고, 降將은 참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주화는 항복이라고 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삭탈관직되어 유배의 명을 받았으나 삼사의 구원으로 화를 면하였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정묘호란 때와 같이 척화를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執義 蔡裕後, 副提學 全滉의 탄핵을 받았고 영동군에 유배되었다가 병으로 풀려 나와 죽었다.<sup>15)</sup>

윤황의 다섯째 아들인 尹宣學은 광해군 2년(1610)-현종 10년(1669) 때의 인물로 자는 吉甫, 호는 美村·魯西·山泉齋이다. 어머니는 昌寧成氏로 牛溪 成渾의 딸이다. 沙溪 金長生의 아들인 愼獨齋 金集의 문인이었고 인조 11년(1633) 식년문과에 형 윤문거와 함께 급제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강화도가 함락되자 처 李氏가 자결하였으나 평민의 복장으로 탈출하였다. 효종 2년(1651) 이래 사헌부지평·장령 등이 제수되었으나, 강화도에서 대의를 지켜 죽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끝내 취임하지 않았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동연구원, 1991), vol.17. p.265.

15) 前掲書. p.339.

다. 이후 김집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성리학과 禮學에 潛心하였다. 宋時烈이 經傳註解 문제로 尹鑄와 사이가 나빠지자, 평소 윤희와 친교가 깊었고 그의 재질을 아끼는 마음에서 변호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교분이 두터웠던 송시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뒤에 노소분파의 한 계기가 되었다<sup>16)</sup>

윤선거의 아들 尹拯(1629-1714)은 17세기 조선의 격동기를 살다간 경학 및 성리학자이며 예학자요 정치가였다. 字는 子仁이고 호는 明齋·西峯이며 시호는 文成이다. 서울 貞善坊 大廟洞에서 인조 7년(1629)에 태어났다.<sup>17)</sup> 8세 때인 1636년에 병자호란을 만나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이듬해 청군에 의해 성이 함락되나 모친인 공주 이씨가 자결하고 부친인 윤선거는 강화도를 탈출하는 일을 겪게 된다.

그의 생애는 크게 수학기(10세-29세), 성숙기(30세-52세), 전환기(53세-85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sup>18)</sup>

첫째, 수학기는 10세에서 29세까지의 시기로 외증조부 성혼으로부터 부친 윤선거로 이어지는 가학적 전통을 계승하여 兪槩·權謨·金集·宋時烈·宋俊吉·趙翼 등 당대의 명유들과 사제관계를 맺거나 직접 찾아가 배우면서 경학 및 성리학적 학문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성숙기는 30세부터 52세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己亥(1659) 예송<sup>19)</sup>과 甲寅(1674)예송으로 인해 노소론의 갈등이 일어났고, 부친 윤선거의 묘갈명으로 인해 스승 송시열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셋째, 전환기는 53세부터 85세까지의 시기이다. 윤증은 숙종 7년(1681)에 일어난 辛酉擬書<sup>20)</sup>사건으로 스승인 송시열과 결별하였고, 이듬해는 노·소론의

16) 前掲書. p.286.

17) 尹光紹. 明齋先生年譜.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英祖 25(1749). 卷1. 1張 前面.

18) 고영진, 「명제사상의 형성과정과 한국사상학적 위치」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務實과 實心の 유학자) 명제 윤증, 수원: 청계, 2001), 22-30.

19) 예송논쟁은 효종과 효종비에 대한 慈懿大妃(인조의 繼妃인 趙氏의 服喪期間을 둘러싸고 현종·숙종대에 발생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을 말하며 1차 기해(1659)예송, 2차 갑인(1674)예송으로 이어진다.

20) 숙종 7년(1681) 辛酉年 윤증이 송시열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편지인 <尹拯擬上尤齋書>를 말하는 것으로 懷尼是非의 단초가 되었다.

분쟁이 일어났으며 숙종 10년(1684)에는 懷尼是非로 송시열과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었다. 이 시기에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노론에 대응하기 위해 無心과 實心을 강조한 그의 사상적 체계가 점차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생애기간 중에 형성된 그의 사상은 경학 및 성리학자, 예학자,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윤증의 아들 尹行教는 현종 2년(1661)-영조 1년(1725) 사이의 인물로, 대사헌을 지냈다. 다만 개인적 저술은 보이지 않으며 벼슬에 전념했던 인물로 짐작된다.

윤행교의 아들인 尹東源은 숙종 11년(1685)-영조 17년(1741)의 인물로, 자는 士正, 호는 一庵이다. 숙종 38년(1712) 증조부 윤선거의 『魯西遺稿』를 교간하였고, 영조 7년(1731) 조부 윤증의 『明齋遺稿』를 편간하였다. 경종 2년(1722) 學行으로 천거되어 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司饗院主簿·司憲府持平·한산군수·홍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이후 까지 살았던 離隱時舍 尹晁重은 실학인 천문학에 심취했던 인물로 그 분야에 관련된 저술을 남겼다. 그의 실학자적 학문경향은 선대의 경제학적인 학풍을 이어받은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문고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파평윤씨 노종파 윤선거가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 3.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형성시기와 장서구성

윤증가의 문중문고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윤선거 이후로 보여진다. 尹宣擧는 윤희의 다섯째 아들이며 아버지의 舊藏書를 상속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희의 구장서중 일부를 윤선거가 물려받아 소장하게 된 경우도 있겠으나 윤희의 구장서 전체를 윤선거가 물려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증 문중문고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노서 윤선거 이후이며, 윤증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장서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왕으로부터

터 하사받은 내사본과 사가의 간행본이 입수됨으로써 문고가 확장되었고, 윤행고, 윤희동원을 거쳐 윤희하중 시기에 이르러 장서의 정비와 아울러 구입으로 확충하는 시기로 이어졌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고 형성에 기여도가 높은 시기는 명재 윤희중

<표 2> 윤희중가 문중문고 장서현황 (단위:종)

구분 문고명	사부	필사본	목판본	탁본	금속활자	목활자	석판본	연활자	계	비율 (%)	
노 서 문 고	경	3	7						10	23.8	
	사	1	6		1				0	19.0	
	자	2	9	1					12	28.5	
	집	3	9						12	28.5	
	소계	9	31	1	1				42	6.0	
명 재 문 고	경	11	45		16	1			73	32.0	
	사	30	26	8	5				0	30.2	
	자	9	14	3	2				28	12.1	
	집	14	39		5				58	25.4	
	소계	64	124	11	28	1			228	32.9	
행 교 문 고	경									-	
	사	21		1					0	73.3	
	자									-	
	집	7	1						0	26.6	
	소계	28	1	1					30	4.3	
일 암 문 고	경		2						2	3.2	
	사	8	2	2					0	19.6	
	자	1	2						3	4.9	
	집	27	18						45	73.7	
	소계	36	24	1					61	8.8	
이 은 시 사	경	3	7			1		4	15	10.2	
	사	6	13	2		3	3	3	0	18.3	
	자	5	9	3			4	15	36	24.4	
	집	3	34				10	6	13	0	44.8
	소계	17	63	5		14	13	35	147	21.2	
기 타	경	8	21						29	15.7	
	사	26	17	2	5				0	27.1	
	자	8	8	3			1		20	10.8	
	집	32	40		9		3	1	85	46.1	
	소계	74	86	5	14		4	1	184	26.5	
총계	228	330	24	43	15	17	36	693	100		

(1629-1714)의 시기와 이은시사 윤하중(1900년대초-1959?)의 시기이다. 노서 윤선거에서 시작된 문고의 형성은 명재 윤증 시기에 이르러 윤증의 지명도와 영향력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으며 윤증의 아들 윤행교와 손자 윤동원 때 까지 이어지다가 윤동원 이후 윤하중 사이의 8대(1742-1900년대초)에 거친 기간 동안은 약간의 침체기를 보이고 있다. 윤동원 이후 윤하중 사이의 시기와 윤하중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집서군을 기타로 묶은 이유이다.

장서에 찍혀있는 장서인 및 장서의 간행시기, 장서기 등 여러 관련 기록들을 참고하여 노서문고, 명재문고, 행교문고, 일암문고, 이은시사문고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문중문고의 형성시기와 장서의 구성내용을 살펴보았다.

### 3.1 魯西文庫

노서문고는 노서 윤선거(1601-1669)의 생애 중에 형성된 문고를 말하며, 장서구성은 전래본, 기증본(流入本包含), 윤선거 저술류, 기타자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서문고의 장서에 찍혀있는 윤선거의 장서인은 모두 세 종류로 본관을 뜻하는 ‘坡平’과 이름인 ‘尹宣學’, 윤선거의 號인 ‘吉甫’ 등이다.

첫째, 전래본에는 아버지 윤희(1571-1639) 이전부터 소장되어 오던 장서로 보이는 세조 12년(1466) 간행본 「易學啓蒙要解」를 비롯하여 윤희의 장인이며 우계 성혼의 아버지인 聽松 成守琛(1493-1564)의 墨跡인 「聽松先生遺筆」과 중종 34년(1539) 간행된 「坡平尹氏族譜」, 선조 1년(1568)에 간행된 「河西行狀」, 선조 36년(1603)의 「思齋集」과 광해군 5년(1613)에 간행한 「東醫寶鑑」이 있다.

둘째, 기증본은 효종 9년(1658) 국가로부터 받은 내사본인 「內訓」과 인조 25년(1647) 간행된 李春英(1563-1606)의 시문집인 「體素集」과 효종 9년(1658) 조위한의 문집 「玄谷集」이 소장되어 있다.

셋째, 윤선거 저술류에는 「家禮源流」, 「簡札帖」, 「子丑聞見」 등의 수고본이 남아 있다. 「가례원류」는 윤선거와 유계가 공동집필한 것으로 孝宗 9년(1658)

에 이루어진 1, 2차본의 수고본이 있다.

「간찰첩」은 윤선거 생애기간 동안에 송시열등과 주고 받은 간찰들을 모아 첩으로 엮은 것이다. 「자축문건」은 윤선거가 인조 14년(1636)부터 인조 15년(1637)까지 2년 동안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다.

넷째, 기타 자료는 인조 9년(1631)에 간행된 이언적(1491-1553)의 「晦齋集」을 비롯하여 「八松封事」, 「疑禮問解」, 「喪禮備要」, 「經書辨疑」 등이 남아 있다.

### 3.2 明齋文庫

명재문고는 명재 윤증(1629-1714)의 생애 중에 형성된 장서들로 총장서는 228종 826책이다. 전체장서대비 비율로 보면 32.9%로 전체 윤증가 문중문고에서 핵심집서군에 속한다. 장서구성을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을 비롯하여 기증본(流入本包含), 윤증 저술류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내사본은 윤증이 顯宗-肅宗年間に 국가로부터 하사받은 24종 182책으로,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종 9년(1668)에 내사된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 동왕 13년(1672)에 내사된 「詩傳大全」은 모두 권수 부분이 유실되어 내사기는 없으나 丙賜印인 「宣賜之記」가 날인되어 있어 내사본임을 알 수 있다.

일부의 결절도 있지만 거절본인 「대명집례」 40책과 「춘추집주대전」 55책은 완결본의 형태로 남아 있어서 頒賜本 중에서는 귀한 장서들이다. 이들 내사본에는 모두 「臣拯稽首」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 윤증이 국가로부터 내사본을 받고 머리숙여 감사하는 의미로 찍은 도장으로 다른 내사본과 개별화되는 장서인에 해당된다. 이들 내사본에는 「선사지기」와 「신증계수」가 찍혀있다. 이 외에 「明齋」라는 장서인도 사용했다.

둘째, 기증본에는 春宮<sup>21)</sup>에서 유입된 것, 윤증의 주변 인물들이 기증한 것,

21) 조선시대 왕의 대를 이을 세자를 東宮이라 하였는데 세자는 흔히 봄에 비유되었다. 春宮은 세자가 기거하던 東宮의 별칭이다.

기증기가 있는 것 등이 있다.

춘궁에서 流入된 책은 肅宗年間에 간행된 「詩經諺解」인데, ‘春宮’이란 장서인이 찍혀 있어 춘궁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을 윤증가에서 소장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 명재문고 내사본 현황

관리번호	書名	卷冊數	板種	刊行年	內賜記	內賜印種類
수-63, 명재 A09B 6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	11冊(缺佚)	戊申字	顯宗 9(1668)	無	宣賜之記
명재 A04 4	詩傳大全	3冊(缺佚)	木板本	顯宗 13(1672)	無	宣賜之記
수-19	列聖御筆	1帖	木板本	肅宗 6(1680)	有	宣賜之記
수-18	列聖御筆	1帖	木板本	肅宗 6(1680)	有	宣賜之記
수-16	列聖御筆	1帖	拓本	肅宗 6(1680)	有	宣賜之記
수-17	宣廟御筆	1帖	木板本	肅宗 6(1680)	有	宣賜之記
수-2	書傳正文	1冊(缺佚)	木板本	肅宗 8(1682)	有	宣賜之記
수-4, 수-41	季漢書	3冊	木板本	肅宗 9(1683)	有	宣賜之記
명재 D05 14	纂註分類杜詩	2冊(缺佚)	木板本	肅宗 10(1684)	有	宣賜之記
명재 C02 33	心經	2冊	木板本	肅宗 11(1685)	有	宣賜之記
수-1, 명재 B13F 3	大明集禮	40冊	木板本	肅宗 20(1694)	有	宣賜之記
명재 C02 35	心經釋疑	1冊	戊申字	肅宗 21(1695)	有	宣賜之記
수-5	同春堂先生文集	2冊(缺佚)	木板本	肅宗 21(1695)	有	宣賜之記
수-14	聖學輯要	7冊	戊申字	肅宗 22(1696)	有	宣賜之記
수-7	增修附註資治通鑑節要續編	2冊(缺佚)	戊申字	肅宗 24(1698)	有	宣賜之記
수-8	皇明通記輯要	15冊(缺佚)	戊申字	肅宗 25(1699)	有	宣賜之記
수-9	春秋補編	2冊	戊申字	肅宗 27(1701)	有	宣賜之記
수-12	周易諺解	2冊(缺佚)	戊申字	肅宗 29(1703)	有	宣賜之記
수-15	光國志慶錄	1冊	木板本	肅宗 29(1703)	有	宣賜之記
수-6	同春堂先生別集	1冊(缺佚)	木板本	肅宗 29(1703)	有	宣賜之記
명재 A07 2, 수-3	春秋集註大全	55冊	木板本	肅宗 30(1704)	有	宣賜之記
명재 C02 18	近思釋疑	4冊	木板本	肅宗 34(1708)	有	宣賜之記
명재 C02 16	近思錄	4冊	木板本	肅宗 34(1708)	有	宣賜之記
수-10	東文選	2冊(缺佚)	顯宗實錄字	肅宗 39(1713)	有	宣賜之記

윤증의 주변인물들이 기증한 것으로는 「五服便覽」과 「慕齋文集」이 있다. 「오복편람」은 4권 4책의 필사본으로 ‘春雨堂印’과 ‘李光佐氏’ 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광좌(1674-1740)는 숙종 ~영조년간에 활약했던 소론의 巨頭로 윤선거의 문집을 毀板하는 나라의 처분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춘우당 이광좌의 구장본이 윤증에게 기증된 것으로 보인다. 「慕齋先生集」에는 ‘朴世采’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박세채(1631-1695)가 소장하고 있던 책을 윤증에게 기증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증기가 있는 것은 현종 3년(1662) 간행본인 재주갑인자변각본 「心經發揮」인데, ‘崇禎壬寅(1662)冬星州牧妹兄景先甫印贈’라는 기증기가 남아 있다.<sup>22)</sup> 현종 6년(1665) 겨울 성주목사이던 매형 경선보가 인출하여 기증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명재의 저술류가 있다. 명재 저술본 중 「明齋先生疑禮問答」, 「家禮源流」, 「聖學旨訣」, 「日用至訣」 등은 경학 및 예학분야의 저술로 친필 수고본에 해당한다.

### 3.3 行教文庫

명재 윤증의 아들 尹行教(1661-1725)의 생애 중에 형성된 집서군으로 내사본, 윤행교 편찬류, 기타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내사본은 「列聖御筆」 1첩의 탁본이 있다. 이 책은 태조-경종의 어필을 모은 것으로 경종 3년(1723)년에 윤행교에게 하사한 내사본이다. 국가에서 영조 1년(1725)에 새로 간행할 때 다시 수취하여 첩보하여 再賜給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이다.<sup>23)</sup>

둘째, 윤행교 편찬류는 명재 윤증의 송사관련 문건을 정리한 「疏章綴」, 「疏章草稿」, 「大綱」, 「泮仗通文」, 「壬午疏筭」 등의 필사본이 있고, 윤증의 簡牘을

22) 명재 C02 34 鄭述. 心經發揮. 4卷2冊(再鑄甲寅字籙刻本). 顯宗 2(1662).

藏書記: 崇禎壬寅(1662)冬星州牧妹兄景先甫印贈

23) 수-20 列聖御筆. 1帖(拓本). [景宗 3(1723)].

後表紙裏面墨書: 擁正三(1725)年十一月初六日癸卯頒賜今年新刊時收聚添補還爲賜給.

정리한 「遺札」이 여러 종 있으며 명제 장례 관련 내용이 기록된 「甲午喪弔賻錄」과 「甲午祭文」이 있다.

셋째, 기타 자료로는 유입시기는 알 수 없으나 윤행교 생애 중에 기증된 것으로 보이는 「知止堂遺稿」(1717)가 있다.

### 3.4 一庵文庫

윤행교의 아들 일암 윤동원(1685-1741)의 생애 중에 형성된 장서들로 일암의 편집류, 기증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일암의 편집류는 증조부인 노서 윤선거와 조부 윤증의 유고를 정리한 자료가 많다. 「魯西先生遺稿」는 숙종 38년(1712)에 정리된 편집용 원고로 여러 종류가 있고,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 있다. 「明齋先生遺稿」는 영조 7년(1731)에 정리된 세 종류의 필사본이 남아있고, 이를 기본 원고로 하여 영조 8년(1732)에 芸閣印書體字로 간행한 것이 있다. 윤증 당시부터 관련된 소송문건들을 정리한 「疏稿」, 「疏稿諸文錄」이 필사본으로 남아있다. 윤동원의 저술은 「趙公墓碣銘」, 「簡札帖」, 「明齋先生家狀」, 「廬山紀行酬唱錄」 등이 있다.

둘째, 기증본으로는 명제 문인들의 문집류들이 있는데 宋徵殷(1652-1720)의 「約軒集」(운각인서체자), 朴長遠(1612-1671)의 「久堂先生集」(목판본 1730), 조익의 「浦渚先生集」 등이 남아 있다.

### 3.5 離隱時舍文庫

조선 말기에서 일제시대를 거쳐 광복이후까지 살았던 천문학자 이은시사 윤희중의 생애 중에 구성된 장서들로 윤희중의 저술본 및 간행본과 기증본, 구입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저술 및 간행본을 살펴보면 윤희중의 저술본으로 「星曆正數」가 있다. 이 「성역정수」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책력에 서양의 천문학을 적용시킨 曆書로

1921년 석판본으로 간행된 것을 비롯하여 1959년 간행본에 이르기까지 관련 원고를 포함하여 총 8종이다. 윤희중에 의해 간행된 책으로는 「五服便覽」이 있다. 權絳(1658-1731)의 저술인 「오복편람」은 제례에서의 복식을 주로 다룬 禮書로 윤증 문중문고에 원고본으로 소장되어 오다가 1929년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윤희중의 친필사본과 함께 2종이 남아 있다. 이외에 尹光緜(1708-1786)의 「甲乙錄」도 1924-1925년 사이에 離隱時舍<sup>24)</sup>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윤증관련 저술을 활발하게 했던 윤광소의 시문집인 목활자본 「素谷先生遺稿」(1915) 역시 이은시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증에 의해 형성된 장서이다. 윤희중이 서문을 써주어 간행에 참여한 1918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柳惠源(1632-1695)의 문집인 「虛齋集」과 1938년 석판본으로 간행된 「五峰先生實記」, 1941년 석판본으로 간행된 「玉堤祠誌」 등이 있다. 이 외에 윤광소가 찬한 1909년 목활자본 「鄭氏三世忠孝錄」이 있다.

셋째, 구입에 의해 형성된 장서로는 윤희중이 저술활동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천문학관련 중국서나 일본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윤희중 시기에는 윤증 문중문고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고 소장본 중 유전되는 동안에 분실되었거나 유실되었던 장서를 재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甲辰(1904)十一月買還尹(手決)”<sup>25)</sup>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윤증의 원고본인 「日用至訣」이 있다.

### 3.6 其他

기타로 묶은 장서들은 일암 윤동원 이후 이은시사 사이의 8대(1742-개화기)에 걸쳐 형성되었거나, 이은시사문고 이후(1960-현재)에 형성된 장서와 소장시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장서들을 말한다.

국가에서 내사받은 내사본과 윤증의 방계 후손인 윤광소(1708-1786)의 저술

24) 離隱時舍는 윤희중의 號이자 윤증고택의 宅號이기도 하다.

31) 手-143 尹拯. 日用至訣. [肅宗 27(1701)]. 筆寫本(原稿本).  
表紙裏面墨書: 甲辰(1904)十一月買還尹 手決

활동에 의해 형성된 장서와 중가 자체간행에 의해 형성된 장서 및 기타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기준본으로는 正祖 19년(1795)에 국가에서 내사받은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는 정유자본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酒禮鄉約繪音」이 소장되어 있다.

둘째, 후손인 윤광소에 의해 저술된 장서들이 있다. 윤광소에 의해 저술된 장서로는 英祖 25년(1749) 목판본 「明齋先生年譜」, 英祖 51년(1775) 간행된 목판본 「明齋先生言行錄」, 英祖 42년(1766) 필사본과 정조 1년(1777) 필사본으로 2종이 남아있는 「明齋先生墓表」가 있으며 필사본 「壬寅以後疏章」 등이 있다.

셋째, 기타 자료로는 정조 7년(1783) 간행된 「字恤典則」과 정리자체철활자본의 「명재선생유고」가 있으며 지갯다리확인서체자로 高宗 3년(1866) 간행된 梁得中(1665-1742)의 시문집인 「德村先生集」과 尹摺(1631-1698)의 「德浦先生遺稿」, 高宗 10년(1873) 간행본인 尹弘圭(1760-1826)의 「陶溪先生遺稿」, 尹文學(1606-1672)의 「石湖先生遺稿」 등이 있다.

#### 4. 尹拯家 所藏 古書의 주제별 및 관종별 분석

##### 4.1 主題別 분석

<표 4> 사부분류에 의한 주제별 분포

사부분류	구분	종(책)	비율(%)
	경	133(433)	19.1
	사	193(637)	27.8
	자	109(197)	15.7
	집	269(975)	38.8
	계	693(2,228)	100

<표 4>에 제시된 구성비를 보면 경부 19.1%, 사부 27.8%, 자부 15.7%, 집부

38.8%로 경부와 자부의 비율이 비슷하고 사부와 집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집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개인문고 및 문중문고의 대체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윤증 중가 집서군에서 대표가 될만한 7개의 주제영역 즉 經學 및 儒家類 분야, 禮學 분야, 政治 분야, 傳記 분야, 金石·藝術 분야, 天文·算法 분야, 詩文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4.1.1 經學 및 儒家類 분야

경학 분야는 윤증 생애기간 중에 집서된 사서류, 소학류, 시류, 역류, 춘추류 등이 주축을 이루고 유가류는 노서와 명재의 생애기간 중에 집서된 것으로 심학과 경제학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경학분야의 사서류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서진 등의 諺解類와 大全類의 자료들이 근간을 이루는데 실천경학을 추구한 명재의 경학사상이 반영된 자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둘째, 유가류 분야는 노서, 명재, 이은시사에 집서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노서문고 자료로는 「讀禮隨抄」(1618), 「孔子統紀」(1625), 「孔子家語」, 「太極圖」 등이 있고 명재문고 자료로는 「近思錄」(1708), 「近思釋疑」(1708), 「心經發揮」(1662), 「自警編」(1664), 「心經」(1685), 「心經釋疑」(1695), 「經書辨疑」(1666), 「聖學輯要」(1696), 「聖學旨訣」(尹拯 手稿本), 「日用至訣」(尹拯 手稿本, 1701), 「講辨未發說」(尹拯 手稿本)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주자로부터 율곡에 이르는 기호학파의 성리학을 계승한 사계 김장생의 저술을 비롯하여 이를 계승한 명재의 道學的 經世觀이 반영되어 있는 집서라 하겠다.

#### 4.1.2 禮學 분야

예학분야 자료는 명재문고의 자료들이 근간을 이루며 沙溪禮學派<sup>26)</sup>의 예학

26) 沙溪 金長生(1548-1656)은 李珥와 宋翼弼에게서 성리학과 예학을 계승하여 예에 밝았던

적 전통을 계승한 예서들로 사계예학의 태두인 김장생과 김집의 저술, 이를 계승한 윤증의 저술본, 그리고 門人들의 저술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계예학과의 연원이 되는 자료로는 沙溪 金長生이 저술한 「喪禮備要」, 「家禮輯覽」, 「疑禮問解」가 있으며 愼獨齋 金集의 「疑禮問解續」이 있다.

둘째, 사계예학과의 예학적 전통을 계승한 명재의 저술본으로 「가례원류」와 「명재선생의례문답」이 있다.

「가례원류」는 윤선거와 윤증의 친필원고본 18책과 1915년에 원고본을 정리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10책본이 남아 있다. 「가례원류」는 윤선거집안의 전래본과 유계집안의 전래본이 전해지고 있다. 윤선거집안의 전래본은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이 책은 尹光紹의 가례원류서문에 의하면, 윤선거와 유계가 <가례> 한 책을 취하여 강으로 삼고 <의례>, <예기> 등의 여러 경전을 근원(源)으로 삼아 漢·唐 시기의 여러 유학자들의 예설을 참고하여(流) 저술한 것이다.<sup>27)</sup> 이를 명재가 다시 정리하여 체계화 한 것인데 이들 원고본에는 윤선거, 유계, 윤증의 필적이 들어있어 윤증 문중문고에서 소장중인 수고본 중 白眉라 여겨진다. 「명재선생의례문답」은 윤증이 친구 및 제자들의 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설로 답한 글들을 모아 8권 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예서는 김장생의 「의례문해」와 김집의 「의례문해속」에 나타나는 四禮에 그치지 않고 <왕가례>, <국홀중사례>, <예서의의> 등으로 관심영역을 확대하여 편성하고 있다. 윤증의 친필 수고본과 후손이 간행한 木板本이 소장되어 있다.

셋째, 門人들의 저술본으로는 「五服便覽」과 「家禮增解」가 있다.

禮學의 대가로 17세기 畿湖學派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가례>를 기본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고금의 예서를 참고하고 당시의 풍속과 인정에 맞추어 <가례>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힘썼다. 그의 예학을 사계예학이라 이른다.

27) 家禮源流 尹光紹序

「…家禮一篇不幸爲童行之竊未得再修而初晚或不同儀禮通解歷文公勉齋而始就然圖式祭禮猶未及訂定尙賴信齋楊氏推演師旨附註以補之禮圖以翼之二書僅得粗完禮書之成果難矣今源流之編累經諸先生之手而猶未完就…」.

### 4.1.3 政治 분야

정치 분야는 조선후기 예송논쟁을 둘러싸고 일어난 노·소론간의 정쟁을 다룬 雜史類인 「甲乙錄」, 「俟百錄」, 「辨誣疏草」, 「癸甲錄」 등이 대표적 장서이다.

「갑을록」은 尹宣學와 宋時烈(1607-1689) 사이의 懷尼是非와 관련한 甲子(1684)·乙丑(1685)의 사건을 중심으로 편집한 책이다. 윤증이 기본적인 정리를 하여 일차 편집하였고, 이어서 후손인 윤광소가 집안 文籍에서 수록된 기사를 모으고, 尹推(1632-1707)의 「辨誣私記」와 윤동원의 「續辨誣錄」을 참고하여 기사를 보충하고 각 사건에 대한 전말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필사 원고본 1종과 윤하중이 1924년 목판으로 간행한 14권 7책이 소장되어 있다.

「사백록」은 소론 측의 입장에서 경신환국(숙종 6, 1680) 이후 숙종 6년(1680)-숙종 45년(1719) 사이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해예송에 관한 문제들과 老·少분당의 원인, 결과 등에 관계된 자료들을 편집한 책으로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노론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我我錄>과 대조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책으로 두 책의 내용을 비교하면 당시의 역사적 사실관계 연구에 참고가 될 자료이다.

「변무소초」는 윤증이 회니시비사건에 대한 송시열의 주장을 반박하여 나라에 올린 변무소들을 모은 것으로 초고본이다.

「계갑록」은 숙종 29년(1703) 박세당이 저술한 <四書思辨錄>에 대한 찬반의 상소와 박세당의 사문난적 사건관련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경종 3년(1723)까지의 노·소론 대립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고본 3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조선 중후기 노·소론 중에서 핵심인물이었던 송시열과 윤증의 당론과 명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군이다.

### 4.1.4 傳記 분야

전기분야는 명재가의 혈연·지연·학연과 관련하여 저술한 행장, 묘지, 실

기, 언행록 등의 자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우선, 명재 자신이 자신의 혈연·학연·지연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인물들의 생애와 행적을 적은 자료와 윤증의 후손들 중 윤광소와 윤동원이 명재에 관한 연보, 묘표, 행장, 언행록 등을 편집한 것들이 있다.

傳記 자료는 명재 자신을 비롯하여 명재 주변의 인맥들을 망라한 자료군으로 명재의 학문과 정치에 관련된 인물들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다.

#### 4.1.5 金石·藝術 분야

금석·예술 분야는 탁본 및 선현들의 유묵자료가 주축을 이룬다.

첫째, 탁본류는 숙종이 명재에게 하사한 「列聖御筆」(1680) 3종과 「宣廟御筆」(1680)이 있으며, 경종(1721-1724)으로 부터 윤행교가 내사받은 「列聖御筆」(1723) 등이 있으며 李滉(1501-1570), 李珣(1536-1584)의 글씨를 모아 탁본한 「書帖」이 있다. 이외에 집안의 필적을 탁본으로 남긴 「尼山諸先生墨蹟」, 윤선거 遺墨 拓本인 「魯城南山」, 윤증의 스승이었던 市南 俞榮와 큰 아버지인 尹舜舉의 글씨를 모아 윤증이 편찬한 「久洞墓文」, 윤행교의 글씨를 탁본한 「書帖」, 尹元舉(1601-1672)와 尹文舉(1606-1672) 형제의 글씨를 모은 「交山墓文」 등이 있다.

둘째, 선현들의 유묵으로는 청송 성수침의 유필인 「聽松先生遺筆」, 鄭夢周(1337-1392), 李滉(1501-1570)의 유필인 「圃隱退溪眞蹟墨剝」과 尹宣舉(1610-1664)의 친필 유묵인 「祖考遺墨」이 있다

#### 4.1.6 天文·算法 분야

천문·산법류는 17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책력을 종류별로 모은 집서군으로 대통력, 시헌력, 백중력, 천세력, 만세력 등의 자료가 남아 있다.

「大清順治八年歲次辛卯(1651)大統曆」과 「時憲曆」에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력을 활용하여 그날 그날의 일상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간이

효종 2년(1651)부터 영조 30년(1754)까지이다. 윤증부터 윤행교와 윤희원을 거쳐 윤희광집의 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윤증가의 행사, 재정, 인물교류, 사회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일기형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아 윤증 집안의 역사와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자료로써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셋째, 정조 4년(1780)부터 시행된 「百中曆」은 1780년에 간행된 것으로부터 고종 31년(1894)에 간행된 것들이 남아 있다.

넷째, 천세력은 正祖 6년(1782)에 간행된 「千歲曆」이 있다.

다섯째, 이 외에도 광무 8년(1904)에 천세력을 고쳐 간행한 「萬歲曆」과, 시현력의 이름을 바꿔 1897년부터 1908년까지 간행한 「明時曆」,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明治-昭和年間の 「朝鮮民曆」이 남아 있다.

이들 책력은 조선조 후기의 책력을 종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집서군으로 다른 문중문고에서는 볼 수 없는 집서군이다.

<표 5> 大統曆 및 時憲曆(1651-1754)

구분 번호	書名	期間	版種	備考
1	大清順治八年歲次辛卯(1651)大統曆	1651~1661(11년)	大統曆字	尹拯(1629~1714)
2	大清康熙元年歲次壬寅(1662)時憲曆	1662~1667(6년)	大統曆字	
3	大清康熙七年歲次戊申(1668)時憲曆	1668~1673(6년)	大統曆字	
4	大清康熙十三年歲次甲寅(1674)時憲曆	1674~1678(5년)	大統曆字	
5	大清康熙十八年歲次己未(1679)時憲曆	1679~1683(5년)	大統曆字	尹行教(1661-1725)
6	大清康熙二十八年歲次己巳(1689)時憲曆	1689~1693(5년)	大統曆字	
7	大清康熙三十八年歲次己卯(1699)時憲曆	1699~1703(5년)	大統曆字	尹東源(1685-1741)
8	大清康熙四十三年歲次甲申(1704)時憲曆	1704~1708(5년)	大統曆字	
9	大清康熙四十八年歲次己丑(1709)時憲曆	1709~1713(5년)	大統曆字	
10	大清康熙五十三年歲次甲午(1714)時憲曆	1714~1718(5년)	大統曆字	
11	大清康熙六十二年歲次癸卯(1723)時憲曆	1723~1724(2년)	大統曆字	
12	大清雍正六年歲次戊申(1728)時憲書	1726~1728(3년)	木板本	
13	大大清乾隆二年歲次丁巳(1737)時憲書	1737~1741(5년)	木板本	
14	大大清乾隆三年歲次戊午(1738)時憲書	1738(1년)	木板本	年度 중복되거나 내용 다름
15	大大清乾隆四年歲次己未(1739)時憲書	1739~1740(2년)	木板本	年度 중복되거나 내용 다름
16	大大清乾隆十七年歲次壬申(1752)時憲書	1752~1754(3년)	木板本	

#### 4.1.7 詩文 분야

시문 분야는 윤희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의 시문과 호서학과 및 관련학자들의 시문, 소론계 문인들의 문집 및 기타 자료로 구성되고 있다. 別集類 228종, 小說類 1종, 詩文評類 15종, 尺牘類 18종, 總集類 10종 등 272종의 장서가 이 분야에 해당된다.

시문 분야는 기호학과 인물들의 시문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서군으로 학술적 저술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문학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 4.2 版種別 分析

<표 6> 판종별 장서 분포

판종	구분	종(책)	비율 (%)
木板本		328(1,280)	47.3
筆寫本		217(406)	31.3
金屬活字本		40(296)	5.7
木活字本		31(81)	4.4
新鉛活字本		36(74)	5.1
拓本		24(24)	3.4
石版本		17(67)	2.4
계		693(2,228)	100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윤희 문중문고의 자료를 판종별로 분석한 결과 목판본이 47.3%로 가장 많고 필사본 31.3%, 활자본 15.2%, 탁본 3.4%, 석판본 2.4%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의 판종별 분석은 간행 기록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비율에 따라 목판본 119종, 필사본 48종, 금속활자본 30종, 목활자본 8종, 신연활자본, 탁본, 석판본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 4.2.1 木板本

목판본 중 1910년 이전에 간행된 자료 중 간행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119종이다.

이들 자료는 1400년대 간행본으로부터 1910년 이전까지 간행시기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첫째, 1400년대 간행본으로는 세조 12년(1466)년에 간행된 「易學啓蒙要解」가 있다.

둘째, 1500년대의 간행본은 燕山君 34년(1539) 간행본인 「坡平尹氏族譜」가 있는데, 이 족보는 국내간행 족보류 중에서도 시기가 앞서는 것이며 파평윤씨 족보 중에서는 最先本으로 보인다.

셋째, 1600년대 자료는 기본적인 별집류들을 비롯하여 김장생의 저술을 중심으로 한 경학 및 유가류 분야의 자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다섯째, 1700년대 간행본은 중앙에서 간행하여 내사한 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섯째, 1800년대 간행된 목판본은 문집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곱째, 1900년대 초기의 간행본을 살펴보면 당시 지방에서 간행된 간행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4.2.2 筆寫本

필사본은 총 219종이며 전체장서의 31.3%를 차지한다. 이들 필사본 중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48종이다. 이들 자료를 문고별로 나누면 노서문고 6종, 명재문고 18종, 행교문고 1종, 일암문고 5종, 이은시사문고 3종, 기타 15종이다. 사부분류로는 경부 7종, 사부 21종, 자부 5종, 집부 1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필사본은 저자친필 手稿本이 42종(교정 정고본 9종 포함), 轉寫本이 6종이다. 원고본은 윤선거, 윤증, 윤동원의 친필로 쓴 수고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필사본은 윤증 문중문고 장서 중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미공개 자료들로서 연구되거나 규명되지 않은 장서들이 많은 중요 집서군이다.

### 4.2.3 活字本

#### 1) 金屬活字本

금속활자본은 총 30종으로 전체자료의 간행시기를 알 수 있는 집서군이다. 활자별로는 戊午字本 1종, 戊申字本 15종, 壬辰字本 1종, 丁酉字本 4종, 韓構字本 1종, 顯宗實錄字本 2종, 芸閣印書體字本(校書館印書體字) 3종, 整理字體鐵活字本 1종, 觀象監大統曆字本 2종이다.

첫째, 戊午字印本으로는 인조 13년(1635)년에 간행한 「歷代名臣奏議」 81 冊(全319卷 87冊)이 소장되어 있는데, 결질본이기는 하지만 巨帙인 것을 감안하면 유실이 적은 편이며 상태 또한 양호하다.

둘째, 戊申字印本으로는 「시경언해」(1668), 「맹자집주대전」(1694), 「심경석의」(1695) 등 15종이 남아 있다. 문중문고 활자본 중에 무신자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윤증이 현종·숙종조에 활약하면서 국가에서 내사받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데 연유하며, 「臣拯稽首」라는 印文을 찍고 독서용이 아닌 소장용으로 관리하여 보존상태가 매우 뛰어나다.

셋째, 壬辰字印本은 「雅誦」 8권2책이 남아 있다.

넷째, 丁酉字印本으로는 「字恤典則」, 「御定朱書」,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酒禮鄉約論音」, 「書傳諺解」가 있다. 이들은 정유자 활자의 조성 초기에 인출된 책들로 글자 획이 선명하고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다섯째, 韓構字印本인 「續資治通鑑綱目」은 전 27권 13책중 5책만이 남아 있는 결본으로 상태가 썩 좋지 않은 편이다.

여섯째, 顯宗實錄字印本으로는 「東文選」이 남아 있다.

일곱째, 숙종 초에 校書館(芸閣)이 명나라의 印書體字 판본을 자본으로 하여 주조한 芸閣印書體字는 校書館印書體字라고도 한다. 芸閣印書體字本으로는 「迂齋集」, 「明齋先生遺稿」, 「約軒集」 등이 소장되어 있다.

여덟째, 整理字體鐵活字本으로는 「명재선생유고」 1종이 소장되어 있다. 芸閣印書體字本 「명재선생유고」와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아 후손들이 선조의 문집을 새로운 활자로 다시 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홉째,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時憲曆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하여 사용했던 觀象監大統曆字<sup>28)</sup>로 찍은 인본으로는 「대통력」(1651, 1652)과 「시헌력」(1653-1723)이 소장되어 있다.

## 2) 목활자본

목활자본은 8종 중 倣芸閣印書體字本 2종, 지갯다리확인서체자본 5종, 芸閣筆書體字本 1종이 있다.

첫째, 방운각인서체자본으로는 1901년 간행된 윤순거의 「童土先生文集」과 林象德(1683-1719)의 시문집인 「老村集」이 소장되어 있다.

둘째, 芸閣筆書體字本은 숙종 14년(1688) 간행된 「箕雅」가 있다.

셋째, 지갯다리확인서체자로 간행된 책으로는 梁得中(1665-1742)의 「德村先生集」, 尹弘圭(1760-1826)의 「陶溪先生遺稿」, 尹文學(1606-1672)의 「石湖先生遺稿」, 尹摺(1631-1698)의 「德浦先生遺稿」, 尹敬教(1632-1691)의 「長湖封事」 등이 있다.

## 3) 新鉛活字本

신연활자본은 총 35종이며 이은시사문고와 기타에 포함된 1900년대 이후의 자료군이다. 1918년 간행본인 鄭基雨의 「雲齋遺稿」, 1926년 간행본인 都漢基의 「管軒集」, 1927년 간행된 金時習의 「梅月堂文集」 등의 별집류들과 1911년부터 1930년대까지 朝鮮總督府에서 간행한 「朝鮮民曆」이 여러 종 있다.

28) 金相溟, “觀象監活字考,” 『圖書館學』 14輯(1987), 132.

#### 4.2.4 拓本

탁본은 총 23종인데, 탁본 간행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列聖御筆」, 「宣廟御筆」, 「久洞墓文」, 「尼山諸先生墨蹟」, 「東海陟州碑」 등이다. 書帖類, 御筆, 遺墨類들이 주축을 이룬다.

#### 4.2.5 石版本

석판본은 총 15종이며, 이은시사문고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4. 結論

명재 윤증가 문중문고의 전적에 관한 서지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윤증 가문의 문중문고는 파평윤씨 노종파중 윤선거(1601-1669), 윤증(1629-1714), 윤행교(1661-1725), 윤동원(1685-1741), 윤하중(1900년대초-1959?)이 활동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2. 이들 문중문고의 장서 693종은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사부분류에 의한 주제분포는 經部 133종 433책(19.1%), 史部 193종 637책(27.8%), 子部 109종 197책(15.7%), 集部 269종 975책(38.8%)이다.

윤증 문중문고의 장서에서 두드러지는 주제군은 경학 및 유가류 분야 101종, 예학 분야 32종, 정치 분야 58종, 전기 분야 68종, 금석·예술 분야 29종, 천문·산법 분야 32종, 시문 분야 269종이다.

1) 경학 및 유가류 분야 중 경학분야는 사서류의 언해와 大全류의 자료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실천경학을 추구한 명재의 경학사상이 반영된 자료들이다. 유가류 분야는 기호학과의 성리학 및 이를 계승한 명재

의 도학적 경세관이 반영된 자료들로 율곡의 「聖學輯要」, 김장생의 「經書辨疑」, 「近思釋疑」, 윤증의 「聖學旨訣」, 「日用至訣」이 중요한 집서이다.

2) 예학 분야는 사계예학과와 예학적 전통을 계승한 자료들로 「喪禮備要」, 「家禮輯覽」, 「疑禮問解」를 비롯하여 명재가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家禮源流」와 「明齋先生疑禮問答」이 두드러지는 자료이다.

3) 정치 분야는 조선후기 예송논쟁을 둘러싼 정쟁자료로 잡사류의 자료들이며 그 중 「甲乙錄」, 「俟百錄」, 「辨誣疏草」, 「癸甲錄」은 모두 이 주제를 대표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4) 전기 분야는 명재가 혈연·학연·지연 등에서 가장 중시한 인물들의 자료군이다. 윤광소와 윤동원이 편집한 윤증의 전기서들은 명재의 생애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집서이다.

5) 금석·예술 분야는 탁본류와 선현들의 유묵자료가 주축을 이루며 탁본류는 숙종이 명재에게 하사한 「列聖御筆」 3종과 「宣廟御筆」, 경종이 윤행교에게 하사한 「列聖御筆」이 가장 귀중하고 유묵자료는 성수침, 정몽주, 윤선거 등의 친필유묵으로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6) 천문·산법류는 17-20세기에 이르는 책력이 모두 집서되어 있다. 그 중 「大統曆」과 「時憲曆」의 집서군은 매우 가치가 높다. 이 책력들에는 윤증가의 행사, 재정, 사회활동이 일기형식으로 적혀 있어 윤증 집안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7) 시문 분야는 명재를 중심으로 한 기호학과 인물들의 자료가 망라되어 있어 국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들이다.

3. 판종별 분포는 木板本 328종 1,280책(47.3%), 筆寫本 217종 406책(31.3%), 金屬活字本 40종 296책(5.7%), 木活字本 31종 81책(4.4%), 新鉛活字本 36종 74책(5.1%), 石版本 17종 67책(2.4%), 拓本 24종 24책(3.4%) 이다

1) 목판본 328종 중 간행시기를 알 수 있었던 것은 119종이며 명재문고가 40.3%로 비중이 높고, 주제별로는 사부의 비중이 46.2%로 가장 높았다. 이들 자료는 14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2) 필사본 217종 중 필사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48종이며 자필 手稿本 33종(교정 정고본 9종 포함)이고 轉寫本이 6종이다. 이들 자료 중 윤선거와 명재의 수고본은 윤증중가 집서군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자료군에 해당한다.
- 3) 활자본은 금속활자본 30종, 목활자본 9종, 신연활자본 35종이다.  
금속활자본은 무오자·무신자·임진자 등이며 무신자가 15종으로 가장 많다. 이는 윤증이 현종·숙종조에 활약하면서 국가에서 내사받은 것으로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詩經諺解」(1668), 「孟子集註大全」(1694), 「심경석의」(1695)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목활자본 중에서는 지갯다리획인서체자로 인출한 양득중의 「德村先生集」이 활자의 마모 흔적을 보이지 않고 깨끗하여 이 활자군에서는 최선본의 가치를 지닌다.  
신연활자본은 1900년대 이후에 집서된 별집류가 주축을 이룬다.
- 4) 석판본은 총 15종 중 윤하중의 「星曆正數」가 가장 대표되는 자료이다.
- 5) 탁본은 윤사국, 이황, 한호, 이명재의 서첩과 윤원거, 윤문거의 유묵들이 돋보이는 자료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撰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 大學校 大學院, 1989.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고서용-」, 서울: 동도서관, 2000.
- 김경숙, “朝鮮後期 門中通文의 類型과 性格.” 『古文書研究』19(2001), 105-146.
- 金東滉, “冲齋 遺物館 藏書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1.
- 김문택, “16-17C 안동 진성이씨가의 족계와 문중조직의 형성과정.” 『조선시대사 학보』 32호 (2005), 2-52.
- 金相溟, “觀象監活字考.” 『圖書館學』14輯(1987), 서울: 도서관학회 131-147.
- 南權熙, “奎章閣 藏書의 書目과 藏書變遷分析: 現存書目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1983.
- 明齋先生門人錄, 筆寫本(原稿本).
- 裴賢淑, “谷城 丁氏家의 默容室 藏書.” 『文獻情報學報』第5輯(1993. 8), 中央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創設 30周年 紀念論文輯, 331-353.
- 裴賢淑, “退溪 藏書의 集散考-個人文庫의 書院文庫化의 一例로서-.” 『書誌學研究』第10輯(1994), 135-169.
- 서울大學校 奎章閣,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經·子部 1」, 서울: 서울大學校 奎章閣, 2000.
- 玉泳晷, “味山文庫의 古書와 古文書.” 『嶺南大學校 圖書館 所藏 古書·古文書 目錄』, 경산: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2000.
- 玉泳晷, “侍講院 藏書의 變遷과 書誌的 分析.”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1995.
- 玉泳晷, “離文院의 藏書와 書目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第12輯(1995), 353-398.
- 玉泳晷, “秋史家의 藏書目錄인 『留餘觀藏書』에 관한 研究.” 慶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創立 二十周年 紀念論文集, 1994, 661-691.
- 玉泳晷, “咸陽朴氏 家傳 古文獻의 내용과 資料的 특성.” 『書誌學研究』第19輯(2002), 255-285.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尹光紹. 「甲乙錄」. 木板本. 論山: 離隱時舍, 1924-1925.
- 尹光紹. 「明齋先生年譜」.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749.
- 李相弼. “泰安朴氏 門中과 南冥學 繼承 樣相.” 「南冥學研究」 제15집. 1-23.
- 李春熙. “門中文庫에 대하여.” 「한국비블리아」 第2輯(1974). 88-101.
-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4.
- 李賢子. “直指寺 所藏 佛書의 書誌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漢城大學校 大學院. 2003.
- 鄭求福. 「古文書와 兩班社會」. 서울: 一朝閣, 2002.
- 鄭求福. 「古文書와 兩班社會」. 서울: 일조각, 2002
- 鄭求福 等著.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99.
- 조용헌. “2만권 古書 수장한 한국 최고의 민간 아카데미.” 「신동아」 (2001. 11.)
- 趙婷化. “朝鮮朝後期 嶺南棺板本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5.
- 千惠鳳.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2003
- 千惠鳳. 「한국 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2001.
-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 서울: 凡友社, 1990.
-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편역. 「얼굴없는 재상 윤증의 시」. 대전: 이화, 2004.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明齋 尹拯의 생애와 사상」. 대전: 同研究所, 2001.
- 坡平尹氏魯宗派譜. 木板本. [光武 3(1899)].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古文書集成 4, 坡平尹氏編 (古典資料叢書 89-1). 城南 同研究院. 198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서울: 중앙 M&B, 1999.